

무역업자의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선호도 연구

구 기 보*, 홍 기 석**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III.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및 현황
- IV. 위안화 무역결제에 관한 실증분석
- V. 결론

한글초록

본 논문은 위안화 무역결제가 향후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9년과 2019년 설문응답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본토인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호하며, 비중국본토인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달러화 무역결제를 크게 선호하고 있다. 둘째, 미래 결제수단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2009년과 2019년에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유로화에 대한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제1저자, jujifu@ssu.ac.kr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kingten@catholic.ac.kr

선호도가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를 앞서고 있다. 셋째, 향후 화폐가치의 안정성과 향후 수용성 및 보편적 활용성(혹은 유동성)이 높은 통화의 경우 2009년에는 위안화가 1순위이고 달러화는 3순위인 반면, 2019년에는 1순위가 달러화이다. 넷째, 향후 화폐가치의 태환성(혹은 편의성)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달러화가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위안화는 2009년과 2019년 모두 안정성, 태환성, 수용성 등 모든 이유에서 유로화보다 선호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역업자들이 현재와 미래에 무역결제 통화로서 어느 통화를 선호하며, 어떤 이유로 해당 통화를 선호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유로화를 능가하여 달러화와 함께 양대 통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 무역업자, 무역결제, 위안화, 위안화 무역결제

I. 서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후 미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 달러화를 대체할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달러화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로서 무역결제나 국제투자, 비축통화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구기보, 2020: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에 이어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해 주요 국가(지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반면, 위안화는 2005년 관리변동환율 체제로의 변경 이후 10여 년간 꾸준한 평가절상이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안정된 통화로 인식되었다.

2014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후 미국과의 격차를 확대해가고 있다.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수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나 수입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에서도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수입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고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무역결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전체 무역결제의 30%에 근접하게 되었다.

위안화 무역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위안화는 국제금융질서에서 공인된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6년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이 되면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3위 권위를 배정받았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에 편입되면서 엔화와 파운드화는 각각 4위와 5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처럼 위상이 급상승하던 위안화는 2016년 이후 무역결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춤하였다. 그 후 서서히 무역결제액이 회복되고 있으나 2015년 결제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역결제통화 → 국제투자통화 → 비축통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위안화는 국제투자통화나 비축통화로서의 위상에 비해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위상이 빠르게 제고되어 왔다. 그러므로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가 정체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무역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무역규모를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는 왜 무역결제통화로서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향후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국내 선행연구와 중국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위안화 무역결제와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난 10여 년간 위안화 무역결제가 얼마나 발전해왔고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무역업자들이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결제통화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09년과 2019년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나 위안화 무역결제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기보·황원일은 무역업자들이 홍콩-중국 간 무역 시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편의성 > 유동성 > 화폐가치의 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구기보·황원일 a, 2010: 287-308). 구기보·황원일은 중국 학자 및 관료들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입장이 위안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과 내부적인 금융개혁을 먼저 완료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소개한 후 그 동안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본 무역업자들이 위안화를 무역결제통화로서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구기보·황원일b, 2010: 285-323). 한편 구기보는 위안화가 무역결제 통화로서 안정성과 태환성(경상계정),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중 무역결제에서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경우 환 리스크 관리, 외환결제의 복잡한 수속 방지, 거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원화 무역결제가 위안화 무역결제보다 외환위기 방지, 외환부족시 무역거래 위축방지, 거래비용 추가 절감, 급격한 원화절상 완화, 원화 국제화 등의 더 많은 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구기보, 2011: 67-107).

다음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위안화 무역결제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위안화 무역결제 일반

王孝华는 위안화 무역결제가 중국에 주는 이점을 정부와 기업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위안화 무역결제는 정부 차원에서 외환보유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위안화 무역결제는 환 리스크를 줄여주고 수수료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王孝华, 2019: 104-105).

何平·邓宁은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가 수출보다는 수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구조가 중국의 자산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에서 수출 시 달러화를 받고 수입 시 위안화를 지급하는 비중이 큰데, 2006-2017년 중국은 위안화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였다(何平·邓宁, 2019: 72-82).

廉国恩·赵劫은 2012년 당시 위안화 대비 미 달러화 환율이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중국건재(中建材国际贸易有限公司)가 미 달러화로 수출계약을 함으로써 환차손을 크게 입었던 사례를 분석하면서 위안화 무역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무역 이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위안화 결제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廉国恩·赵劫, 2018: 22-24).

그 외에 陈新禹은 위안화 환율이 중국의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CPI)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위안화 무역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율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陈新禹, 2019: 83-91).

2) 개별 국가(지역)와의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연구

刘子璇은 아세안과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역규모가 클수록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며, 역외 위안화시장의 발전수준이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刘子璇, 2019: 76-80).

徐雪·侯铁建은 중러 무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안화결제발전수준, 수출상품구조, 위안화시장 발전정도,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이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안화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위안화결제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안화가 불안정한 통화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徐雪·侯铁

建, 2019: 12-15).

陈雄은 위안화가 지역결제통화로 정착되기 위해 미국의 석유거래 결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전자상거래가 발전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위안화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투자은행을 기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陈雄, 2019: 13-18).

3)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苗艺馨은 금융발전과 산업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등 세 분야가 위안화 무역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발전의 경우 양적 성장은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질적 성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의 생산성과 과학기술 혁신은 위안화 무역결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苗艺馨, 2019: 92-99).

刘丽娟 외는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시장지위, 국제화수준 등의 요인 이외에 환율변동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 위안화 무역결제는 중국 경제주기, 거시경제상황, 역주기 조절 금융정책, 무역규모의 증가, 위안화 환율 안정 등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刘丽娟 외, 2020: 15-20).

刘越·孟萍莉은 2011-2017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위안화 무역결제 발전을 위해 경제 및 대외무역 성장, 위안화 화폐가치의 안정성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보장, 역외결제시장 구축, 정책적 지원 및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刘越·孟萍莉, 2019: 30-38).

马光明 외는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위안화 환율, 역외 위안화 잔량, 수출상품의 이질성, 중

국 대륙과 홍콩 위안화 환율 차이 등의 요인이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马光明 외, 2018: 119-141).

4)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무역결제

陈洋은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미시적인 측면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화 무역결제는 위안화 국제화의 제1단계에 해당하므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위안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陈洋, 2019: 86-88).

孙沛香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행하여 미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은 대체결제 수단으로서 위안화 무역결제를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지수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으며, 위안화 무역결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불안정, 감독제도 미비, 금융시장 미발전, 중국 기업의 낮은 위안화 선호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孙沛香, 2020: 33-37).

2. 연구의 차별성

국내에서는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연구가 홍콩, 일본, 한국 등 무역업자들의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중국에서는 위안화 무역결제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특정 국가(지여)와의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위안화 무역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안화 무역결제와 위안화 국제화의 연관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구기보·황원일(2009, 2010)의 연구와 구기보

(2011)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기보·황원일(2010)의 연구와 구기보(2011)의 연구에서 통일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이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무역규모가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규모에 대한 설문을 조정하였다. 한편, 상기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 본토인과 중국 본토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이 없는데, 중국 본토인과 중국 본토인이 아닌 사람들의 설문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본토인과 비본토인을 구분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III.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및 현황

1.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정책

중국 정부는 2009년 7월 시범적으로 365개 기업에 대해 홍콩과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 기업을 6만 7,0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2012년 3월에는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 기업의 소재 범위도 2009년에는 광둥성으로 한정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적인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 후 위안화 무역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2018년 1월에는 ‘일대일로’ 지역에서의 위안화 무역결제 및 투자 시 위안화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일대일로 지역에서의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주요 조치

시기	주요 내용
2018년 1월	위안화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일대일로 지역의 위안화 사용 편의성 제고
2014년 3월	위안화 무역 및 투자 편리화
2013년 7월	위안화 결제 효율성 제고, 은행 및 기업의 위안화 결제 제고
2012년 3월	위안화 결제를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2011년 8월	위안화 무역결제 전국으로 확대
2010년 6월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기업도 6만 7,000여개사로 대폭 확대
2009년 7월	홍콩과 첫 위안화 무역결제. 365개에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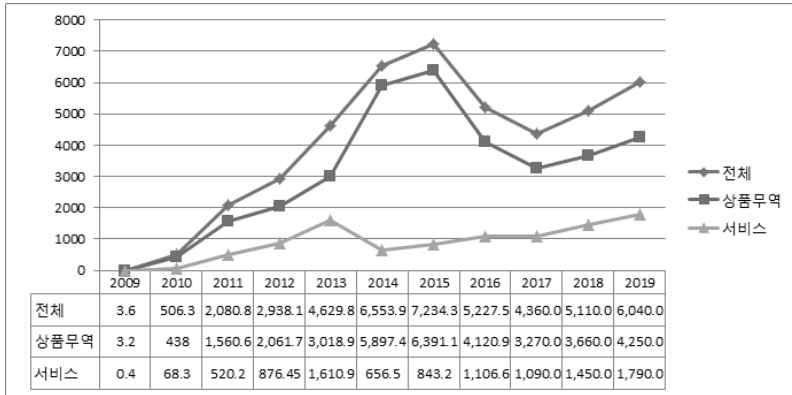
자료: 중국인민은행 정책 문건 정리

2.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공식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처음 시작한 2009년에는 그 규모가 36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무역결제 허용기업과 허용지역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여 2015년에는 무려 7조 2,343억 위안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 후 잠시 주춤하여 2017년에는 4조 위안대로 하락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6조 위안대로 회복되고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를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구분해보면 2019년 현재 상품무역의 위안화 결제가 서비스무역에 비해 2.4배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후 서비스무역의 위안화결제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상품무역의 위안화 결제는 2015-2016년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무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위안화 무역결제 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 1〉 위안화 무역결제 추이(단위: 10억 위안, %)



한편 2015년 이후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 무역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2005년 중국 정부가 환율제도를 관리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이후 위안화 환율은 2014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되는 추이를 이어오면서 위안화는 매우 안정적인 통화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로 전환되면서 위안화 무역결제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단위: 위안)



자료: google 제공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¹⁾

IV. 위안화 무역결제에 관한 실증분석

1. 설문 참여자의 특성

본 설문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세계적인 뷰티 전시회에 해당하는 홍콩 코스모프로프 전시회와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세계 3대 전자 전시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대상 중 뷰티와 전자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총 인원은 76명이며, 설문 문항에 따라 결측치 및 복수응답 허용이 되어 있어 각 문항별 합계는 서로 다른 표본 크기를 보이고 있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자(55.3%)가 남자(44.7%)보다 많았으며, 설문 참여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로 평균 연령 36.1세와 표준편차 8.77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업 종사경력은 1년 경력부터 32년 경력까지 평균 7.83년과 표준편차 6.85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설문 응답자가 속한 회사의 소재국(혹은 지역)으로는 중국(32.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홍콩(9.3%), 유럽(8.6%), 대만(3.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46.9%)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 거래 업종은 전자(26.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18.6%), 기계(13.4%), 화학(11.3%), 자동차(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업종(22.7%)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무역 거래 상대국(혹은 지역)으로는 미국(22.1%), 중국(20.3%), 일본(20.3%), 유럽(14.5%), 한국(11.6%), 동남아시아(9.9%)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규모로는 100만불 이상~1000만불 미만(32.9%)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25.0%),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18.4%), 10만불 미만(11.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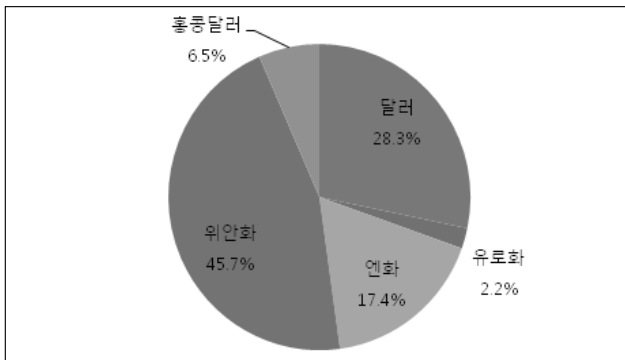
〈표2〉 설문 참여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4	44.7
	여	42	55.3
	합계	76	100.0
소재국 (복수응답 허용)	중국	26	32.1
	홍콩	7	9.3
	대만	3	3.7
	유럽	7	8.6
	기타	38	46.9
	합계	81	100.0
무역거래업종 (복수응답허용)	화학	11	11.3
	섬유 및 의류	18	18.6
	전자	26	26.8
	기계	13	13.4
	자동차	7	7.2
	기타	22	22.7
	합계	97	100.0
무역거래 상대국 (복수응답 허용)	중국	35	20.3
	미국	38	22.1
	EU	25	14.5
	일본	35	20.3
	동남아	17	9.9
	한국	20	11.6
	기타	2	1.2
	합계	172	100.0
무역규모	10만불 미만	9	11.8
	10만불 이상 ~ 50만 불 미만	14	18.4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19	25.0
	1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25	32.9
	1000만불 이상	7	9.2
	무응답	2	2.6
	합계	77	100.0
연령	N=76(20세~60세)	평균 36.12	표준편차: 8.77세
무역업 종사 경력	N=71(1년~32년)	평균 7.83년	표준편차: 6.85년

2.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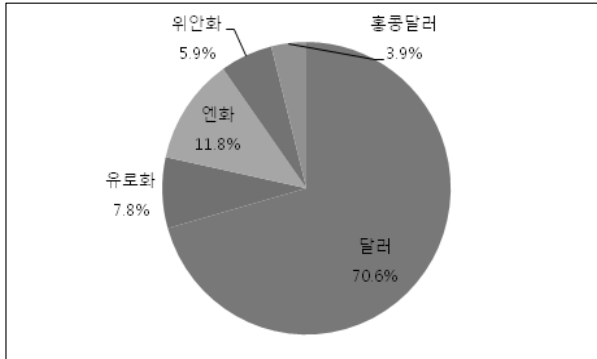
1) 중국 무역업자의 타국(지역)과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총 76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중국 무역업자인 30명을 대상으로 ‘타국(혹은 지역)과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를 결제하기 원하는가’에 대해 복수응답(복수응답 합계 46)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위안화(45.7%)와 달러(28.3%), 엔화(17.4%)가 다수가 선호하는 결제통화임을 보여주었고, 홍콩달러(6.5%)와 유로화(2.2%)는 선호하는 결제 통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중국-타국 무역결제시 선호통화



2) 비중국 무역업자의 중국과의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총 76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비중국 무역업자인 46명을 대상으로 ‘중국과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를 결제하기 원하는가’에 대해 복수응답(복수응답 합계 51)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달러(70.6%)가 가장 선호하는 결제통화임이 나타났고 엔화(11.8%), 유로화(7.8%), 위안화(5.9%), 홍콩달러(3.9%)는 선호하는 결제 통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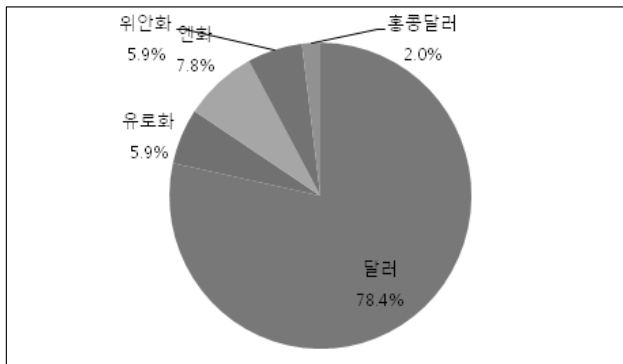
〈그림 5〉 대중국 무역결제시 선호통화



3) 비중국 무역업자의 중국이 아닌 제3국과의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총76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비중국 무역업자인 46명을 대상으로 ‘중국과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를 결제하기 원하는가’에 대해 복수응답(복수응답 합계 51)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달러(78.4%)를 가장 선호하는 결제통화임이 나타났고 엔화(7.8%), 유로화(5.9%), 위안화(5.9%), 홍콩달러(2.0%)는 선호하는 결제 통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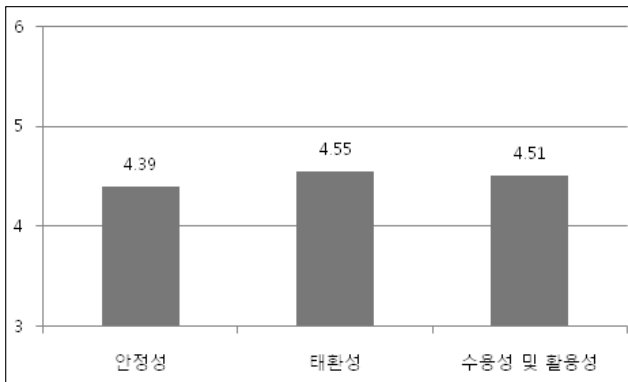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이 아닌 제3국과의 무역결제시 선호통화



3.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특정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

어떤 특정 통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선호하는 이유로서 ‘화폐 가치의 안정성’, ‘태환성(수수료, 환전 등)’,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에 대해 그 동의 여부를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태환성’(평균:4.55점, 표준편차 1.222점),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평균:4.51점, 표준편차 1.274점), ‘안정성’(평균:4.39점, 표준편차:1.304점) 모두 특정화폐를 결제 통화로서 선호하는 이유들로 인정되었다.

<그림 7> 무역결제시 특정통화를 선호하는 이유



주 : 수직축은 6점 척도상의 점수로 각 선호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임
(1: 매우 부정, 6: 매우 긍정)

4. 향후 무역결제시 특정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

‘향후 무역결제시 달러가 계속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달러를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서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긍정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8>의 ‘(1) 미래 결제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달러(평균: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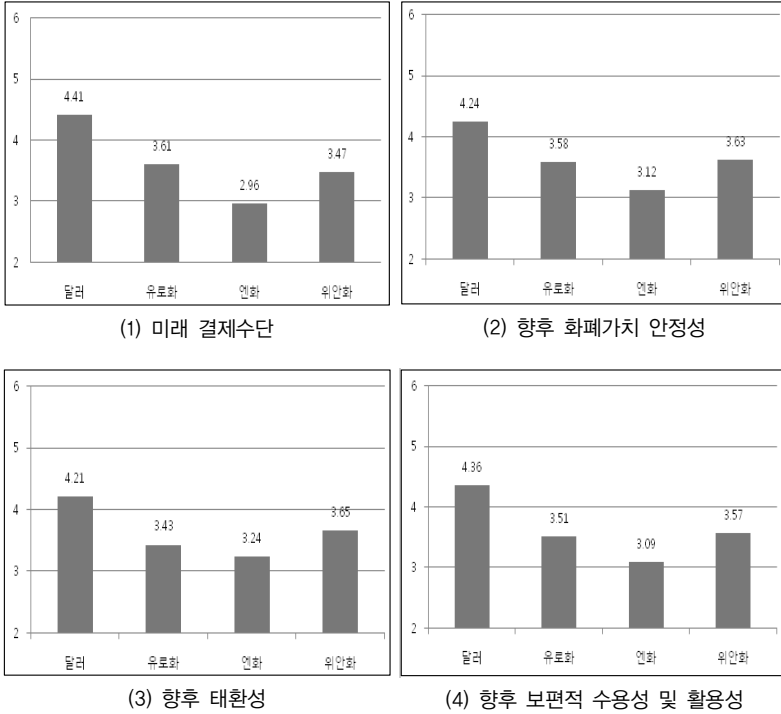
표준편차: 1.169)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로화(평균: 3.61, 표준편차: 1.347), 위안화(평균: 3.47, 표준편차: 1.329), 엔화(평균: 2.96, 표준편차: 1.308)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향후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각각이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긍정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8>의 ‘(2) 향후 화폐가치 안정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달러(평균: 4.24, 표준편차: 1.217)는 긍정적인 답변이 보였다. 반면, 위안화(평균: 3.63, 표준편차: 1.313), 유로화(평균: 3.58, 표준편차: 1.289), 엔화(평균: 3.12, 표준편차: 1.294)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향후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각각이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태환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긍정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8>의 ‘(3) 향후 태환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달러(평균: 4.21, 표준편차: 1.32)는 긍정적인 답변이 보였다. 반면, 위안화(평균: 3.65, 표준편차: 1.214), 유로화(평균: 3.43, 표준편차: 1.199), 엔화(평균: 3.24, 표준편차: 1.384)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향후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각각이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긍정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8>의 ‘(4) 향후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달러(평균: 4.36, 표준편차: 1.344)는 긍정적인 답변이 보였다. 반면, 위안화(평균: 3.57, 표준편차: 1.327), 유로화(평균: 3.51, 표준편차: 1.245), 엔화(평균: 3.09, 표준편차: 1.317)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타났다.

〈그림 8〉 각 화폐의 향후 결제수단으로서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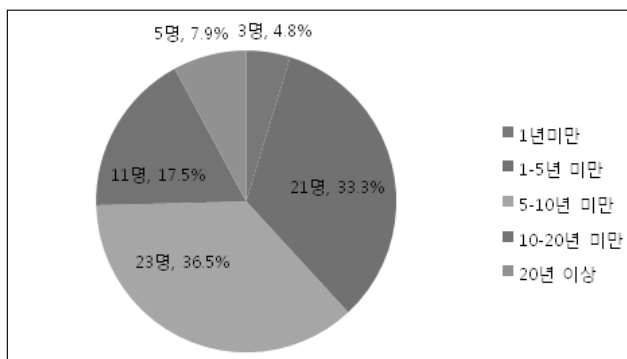


주: 수직축은 6점 척도상의 점수로 각 선호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임
(1: 매우 부정, 6: 매우 긍정)

5. 위안화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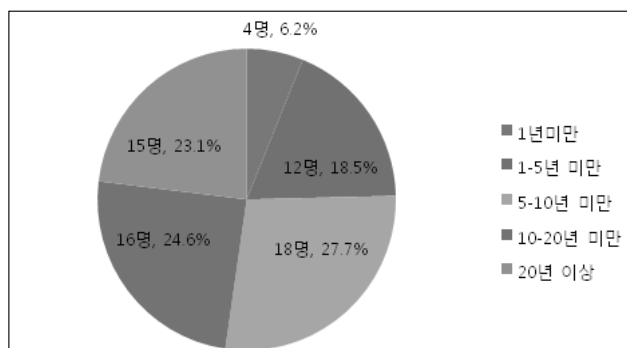
‘대중국 무역결제시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하여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63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5~10년 미만(36.5%)과 1~5년 미만(33.3%)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예상한 시간이고, 그 뒤를 이어 10~20년 미만(17.5%), 20년 이상(7.9%)을 응답자들이 예상시간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9〉 대중국 무역결제시 위안화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중국이 아닌 제3국과 무역결제시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하여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65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5~10년 미만(27.7%)와 10~20년 미만(24.6%), 20년 이상(23.1%), 1~5년 미만(18.5%), 1년 미만(6.2%) 순으로 응답자들이 예상 시간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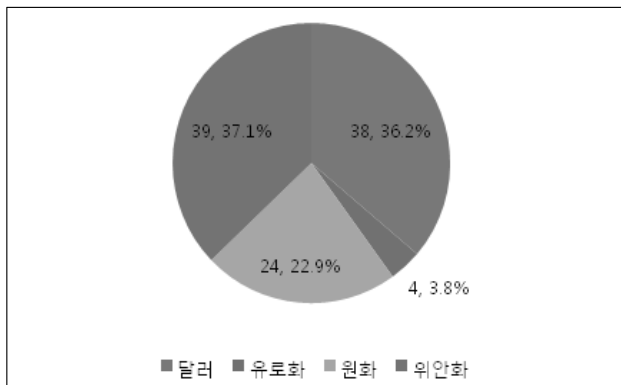
〈그림 10〉 중국이 아닌 제3국과 무역결제시 위안화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6. 한-중 무역결제시 결제수단으로 선호하는 통화

‘한국과 중국 양국간 무역결제시 어느 통화로 결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총 75명이 선호하는 통화를 복수응답(합계 105)하였다.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안화(37.1%), 달러(36.2%)를 가장 선호하며, 뒤를 이어 원화(22.9%), 유로화(3.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한-중 무역결제시 선호 통화



V. 결론

본 논문을 구기보·황원일a(2009)의 논문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역결제시 중국 본토인들은 2009년과 2019- 2020년(이하 2019년) 모두 ‘위안화>달러화’ 순으로 선호한다. 비중국본토인의 경우 2009년에는 홍콩인만 ‘위안화>달러화’ 순으로 선호하고 미국, 일본, 대만인은 ‘달러화>위안화’ 순으로 선호하며, 2019년에는 ‘달러화>엔화>유로화>위안화’ 등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결제시 특정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2009년 ‘편의성>유동성>안정성’의 순

으로 나타나고 2019년에는 ‘태환성>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안정성’으로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²⁾ 특이한 점은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무역결제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경제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통화로는 2009년에는 ‘유로화>위안화>달러화>엔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로 달러화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2009년에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유로화와 위안화는 상당히 안정된 반면, 2019년에는 유럽 경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달러화는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무역업자의 인식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무역결제 수단으로 주요 통화의 우선순위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응답은 2009년에는 ‘위안화>유로화>달러화>엔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달러화>위안화>유로화>엔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통화는 달러화로 2009년에는 달러화의 향후 화폐가치가 3순위라고 예상하였으나 2019년에는 1순위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무역결제 수단으로서의 태환성(혹은 편의성)에 대한 응답은 2009년에는 ‘달러화>위안화>유로화>엔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달러화>위안화>유로화>엔화’의 순으로 나타나 2009년과 2019년 모두 달러화를 1순위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무역결제 수단으로 수용성 및 보편적 활용성(혹은 유동성)에 대한 응답은 2009년에는 ‘위안화>유로화>달러화>엔화’의 순이며, 2019년에는 ‘달러화>위안화>유로화>엔화’의 순으로 나

2)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2009년과 2019년 특정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의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타났다. 향후 수용성 및 보편적 활용성(혹은 유동성)에 대해서도 화폐가치의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는 달러화를 3순위로 응답하였고 2019년에는 1순위로 응답하고 있다.

〈표3〉 무역결제 통화에 대한 인식 비교

	2019년(6점 척도)	2009년(7점 척도)
중국 무역업자의 타국(지역)과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위안화(45.7%), 달러(28.3%), 엔화(17.4%), 홍콩달러(6.5%)와 유로화(2.2%)	위안화(55.6%), 달러화(29.6%), 유로화(5.6%), 엔화(1.9%)
비중국 무역업자의 중국과의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달러(70.6%), 엔화(11.8%), 유로화(7.8%), 위안화(5.9%), 홍콩달러(3.9%)	홍콩: 위안화 36.7%, 달러화 32.7%, 유로화와 엔화 각각 4.1% 미국: 달러화 71.4%, 유로화 14.3% 일본: 달러화 66.7%, 유로화 16.7% 대만: 달러화 66.7%, 위안화 33.3%
비중국 무역업자의 중국이 아닌 제3국과의 무역결제시 선호하는 결제 통화	달러(78.4%), 엔화(7.8%), 유로화(5.9%), 위안화(5.9%), 홍콩달러(2.0%)	
무역결제시 특정 통화를 선호하는 이유	‘태환성’(평균:4.55점),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평균:4.51점), ‘안정성’(평균:4.39점)	‘편의성’(평균: 5.11점), ‘유동성’(평균: 4.82점), ‘화폐가치 안정성’(평균: 4.71점)
미래 결제수단	달러(평균:4.41), 유로화(평균:3.61), 위안화(평균:3.47), 엔화(평균:2.96)	유로화(평균: 4.51점), 위안화(평균: 4.48점), 달러화(평균: 4.21점), 엔화(평균: 3.32점)
향후 화폐가치 안정성	달러(평균:4.24), 위안화(평균:3.63), 유로화(평균:3.58), 엔화(평균:3.12)	위안화(평균: 4.55점), 유로화(평균: 4.16점), 달러화(평균: 4.13점), 엔화(평균: 3.34점)
향후 태환성	달러(평균:4.21), 위안화(평균:3.65), 유로화(평균:3.43), 엔화(평균:3.24)	
향후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달러화(평균: 4.46점),

	2019년(6점 척도)	2009년(7점 척도)
편의성		위안화(평균: 4.46점), 유로화(평균: 4.19점), 엔화(평균: 3.29점)
향후 보편적 수용성 및 활용성	달러(평균:4.36), 위안화(평균:3.57), 유로화(평균:3.51), 엔화(평균:3.09)	
향후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유동성		위안화(평균: 4.46점), 유로화(평균: 4.38점), 달러화(평균: 4.32점), 엔화(평균: 3.28점)
한-중 무역결제시 결제수단으로 선호하는 통화	위안화(37.1%), 달러(36.2%), 원화(22.9%), 유로화(3.8%)	

주: 2009년 편의성은 환전 등 태환성의 개념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용성 및 활용성은 유동성과 유사한 개념임.

상기 2009년과 2019년 설문응답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본토인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호하며, 비중국본토인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달러화 무역결제를 크게 선호하고 있다. 둘째, 미래 결제 수단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2009년과 2019년에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유로화에 대한 선호도가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를 앞서고 있다. 셋째, 향후 화폐가치의 안정성과 향후 수용성 및 보편적 활용성(혹은 유동성)이 높은 통화의 경우 2009년에는 위안화가 1순위이고 달러화는 3순위인 반면, 2019년에는 달러화가 1순위이다. 넷째, 향후 화폐가치의 태환성(혹은 편의성)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달러화가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위안화는 2009년과 2019년 모두 안정성, 태환성, 수용성 등 모든 이유에서 유로화보다 선호되고 있다.

본 논문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 한편 2009년은 미국 금융위기 직후라

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정상시의 결제통화에 대한 선호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무역업자들이 현재와 미래에 무역결제 통화로서 어느 통화를 선호하며, 어떤 이유로 해당 통화를 선호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유로화를 능가하여 달러화와 함께 양대 통화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성장하는 추세를 꾸준히 관찰하여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의 비중이나 무역결제통화로 어느 정도 위안화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기보, 2020, 『중국금융론』, 제3판, 삼영사.
- 구기보·황원일a, 2010, 「중·홍콩 무역업자의 무역결제시 위안화 선호도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49권, pp.287-308.
- 구기보·황원일b, 2010,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 일본 무역업자의 반응」, 『현대중국연구』, 12권, 1호, pp.285-323.
- 구기보, 2011, 「한중 양국 무역업자의 무역결제 통화에 대한 인식 검토」,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pp.67-107.
- 陈雄, 2019, 「区域贸易人民币主导型结算设想及应用」, 『区域金融研究』, 第7期, pp.13-18.
- 陈新禹, 2019, 「人民币汇率、物价水平和国际贸易结算」, 『当代经济科学』, 第41卷 第3期, pp.83-91.
- 陈洋, 2019, 「人民币国际化研究综述——基于跨境贸易人民币结算视角」, 『哈尔滨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第1期, pp.86-88.
- 何平·邓宁, 2019, 「国际贸易结算中的人民币使用与中国的财富损失」, 『学术研究』, 第11期, pp.72-82.
- 廉国恩·赵劫, 2018, 「E-Trade时代传统跨境贸易人民币结算实例分析」, 『对外经贸』, 第1期, pp.22-24.
- 刘丽娟·赵恒·王丽佳, 2020, 「跨境贸易人民币结算影响因素的实证分析」, 『税务与经济』, 2期, pp.15-20.
- 刘子璇, 2019, 「东盟—中国跨境贸易人民币结算影响因素分析」, 『北方金融』, 9, pp.76-80.
- 刘越·孟萍莉, 2019, 「跨境贸易人民币结算发展的影响因素实证分析」, 『无锡商业职业技术学院学报』, 第19卷 第5期, pp.30-38.
- 马光明·任颖·郭东方, 2018, 「跨境贸易人民币结算比重影响因素的实证研究」, 『世界经济与政治论坛』, 第1期, pp.119-141.
- 苗艺馨, 2019, 「人民币国际使用中的跨境贸易结算问题研究——基于省际面板数

- 据」,『学术研究』,第11期, pp.92-99.
- 王孝华, 2019,「跨境贸易人民币结算与国际竞争力思考」,『中国商论』, 03, pp. 104-105.
- 孙沛香, 2020,「跨境结算对人民币国际化的影响」,『青海金融』, pp.33-37.
- 徐雪·侯铁建, 2019,「中俄双边贸易中人民币结算影响因素分析」,『中国集体经济』, 5, pp.12-15.

A Study on Traders' Preference for Trade Settlement through the Chinese Yuan

Ku Ki Bo(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Soongsil University),

Hong Ki Suk(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is paper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for how much Chinese yuan trade settlement will be used in the future compared with U.S. dollar or euro.

The 2009 and 2019 surveys revealed some of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mainland Chinese prefer Chinese yuan trade settlement in both 2009 and 2019, while non-Chinese people prefer U.S. dollar trade settlement in both 2009 and 2019. Second, the preference for the dollar as a means of future settlement varies greatly in 2009 and 2019, and the preference for the euro is ahead of the preference for the yuan. Third, for currencies with high monetary value stability and acceptability (or liquidity) in the future, the yuan is first in 2009, while the dollar is first in 2019. Fourth, for the convertibility of the currency in the future (or convenience), the dollar is ranked first in both 2009 and 2019. Finally, the yuan is preferred over the euro in both 2009 and 2019 for all reasons, including stability, convertibility and Acceptability.

This paper provides a clue to which currency traders prefer as a trade settlement currency now and in the future, and why they prefer the currency.

And furthermore, the preference for yuan trade settlement could outpace the euro and grow into two major currencies with the dollar in the future.

Key Words

China, Traders, Trade Settlement, Chinese Yuan, Chinese Yuan Trade Settlement